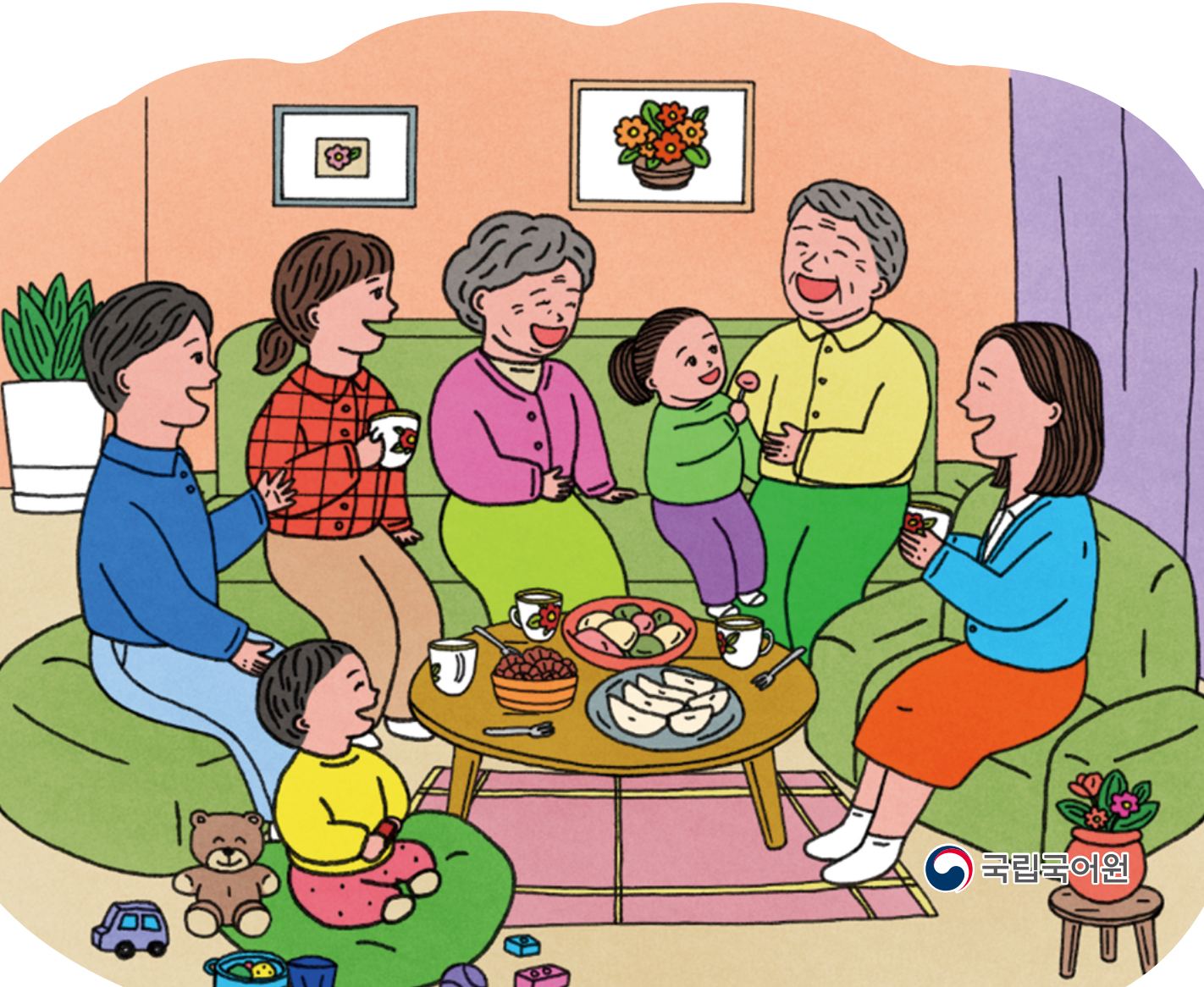
배려와 소통의 호칭과 지칭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머리말

국립국어원장
소 강 춘

우리의 말은 고정적이지 않고 관계 속에서 변화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언어 예절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고 이르는 때에 궁금할 법한 내용을 바뀐 언어 현실에 맞추어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오래전에 발간한 『표준 화법 해설』과 『표준 언어 예절』이 지금까지 언어 예절의 지침서 역할을 해 왔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원은 2017년에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값진 두 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에서는 기존의 옳고 그름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표준'이라는 엄격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자유롭게 부르고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쓰여 왔던 호칭어와 지칭어를 따라도 좋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 가족의 전통을 따라도 좋습니다. 만약 시동생에게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면 시동생의 이름을 넣어 '○○ 씨'라고 부를 수도 있고, 본인 자녀의 이름을 넣어 '○○ 삼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호칭이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도련님'으로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속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부르고 이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은 남이 들었을 때도 기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은 책자가 여러분들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가 나오기까지 힘써 주신 연구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개의 글

연구 책임자
박 철 우
(안양대학교)

배려와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안내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에 『표준 언어 예절』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호칭, 지칭, 경어법, 인사말 등의 선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표준 언어 예절』을 가정과 사회의 언어 예절 지침서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해가 더해 가면서 언어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호칭어와 지칭어 가운데 일부 표현이 듣는 이에 따라서는 차별적인 말로 인식되거나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나서서 보다 정확한 표현을 제시해 줄 것을 호소하며 호칭과 지칭 문제를 국립국어원에 문의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은 변화하는 언어의 모습을 발굴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사전이나 언어 규범 등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성격이 강한 호칭과 지칭마저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개인의 표현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의 개념을 빌리자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고정된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고맥락 사회를 벗어나 개인과 개인의 맥락 거래가 유동적인 저맥락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표준 언어 예절』에 사용된 '표준'의 개념은 국어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표준어 규정」의 '표준어'가 가지는 위상과는 다릅니다. 『표준 언어 예절』의 '표준'은 주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 속에서 가족의 질서 유지를 위한 호칭, 지칭의 모범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모범적 표현들은 전통적인 대가족의 질서 속에서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수히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과 개인의 '호칭 거래'에서는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호칭과 지칭은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되, 부르는 이와 불리는 이가 불편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표현 방식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표준 언어 예절』에서 제시한 호칭과 지칭 표현만을 모범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듣는 이의 입장을 배려한 표현이라면, 화자와 청자가 서로 존중하는 표현이라면, 오늘날 실제로 부르거나 불리고 있는 다양한 호칭과 지칭의 방식들을 폭넓게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로는 집단의 질서 유지를 중시하여 개인의 다변적인 관계를 배제한 채 위계만을 강조하는 사회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개인으로서 부르고 불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질서 유지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유대감과 같은 덕목입니다. 군대와 같이 수직적인 조직에서도 계급을 넘어 나이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고, 그 배려의 방법은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가 우리 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담들을 허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불러서 기분 좋고, 불려서 행복한 열린 소통의 세계로 진입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인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으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한 호칭과 지칭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더욱 살맛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장의 구성

■ 삽화

각 장의 제목과 관련된 장면을 재미있게 그림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이런 일, 저런 일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나 고민이 될 만한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문

전통적으로 성별이나 서열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던 호칭이나 지칭 중 현재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하면서 생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 잠깐만요!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내 고민을 부탁해요!

국립국어원으로 들어온 질문 중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고민을 소개하고, 그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례

01 **세 살 때 부른 엄마 • 아빠, 여든에도 괜찮아요** / 8
부모와 자녀

02 **우리 결혼했어요** / 11
남편과 아내

03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라도** / 15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04 **나이가 숫자에 불과해요?** / 19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05 **'-님'과 함께** / 24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06 **조카님, 아이스크림 사 주세요** / 30
삼촌과 조카

07 **효자동 할머니 댁에 놀러 가요** / 35
조부모와 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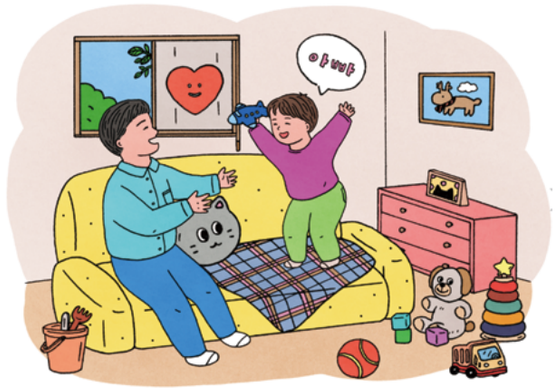
08 **가깝고도 먼 우리 사이** / 38
사돈

09 **일로 만난 사이** / 42
직장 내 관계

10 **또 다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 47
가족, 직장을 제외한 관계

1 세 살 때 부른 엄마•아빠, 여든에도 괜찮아요

부모와 자녀





이런 일, 저런 일

-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철수야." 하고 부르시는 것을 본 세 살배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저에게 "철수야, 물!" 하고 말해서 온 가족이 웃느라고 야단도 못 쳤답니다.
- 회사의 부장님께서 "자당께서는 안녕하신가?" 하고 물으셨는데 "네? 아, 엄마요, 잘 계시죠." 했더니 부장님께서 갑자기 당황해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모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이 예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기보다 '아빠', '엄마'로 부르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자녀가 생긴 후에도 자신의 부모를 어려서와 같이 '아빠', '엄마'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에서라면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고 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를 이르는 말은 부르는 말과 같습니다. 부모의 형제자매, 나의 형제자매, 친척들에게 내 부모를 이를 때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높여 이르기도 합니다.

자녀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가정에 따라 '아들', '딸'로 부르거나 형제들 간의 서열에 따라 '첫째야', '막내야'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고 손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라면 자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손주의 이름을 빌려 'ㅇㅇ[손주 이름] 아범/아비', 'ㅇㅇ[손주 이름] 어멈/어미'와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ㅇㅇ[손주 이름] 아빠', 'ㅇㅇ[손주 이름] 엄마'로 부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편 자녀를 직장 동료들 앞에서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갖춰 불러야 할 경우에는 자녀의 이름이나 'ㅇ 선생', 'ㅇ 과장[직함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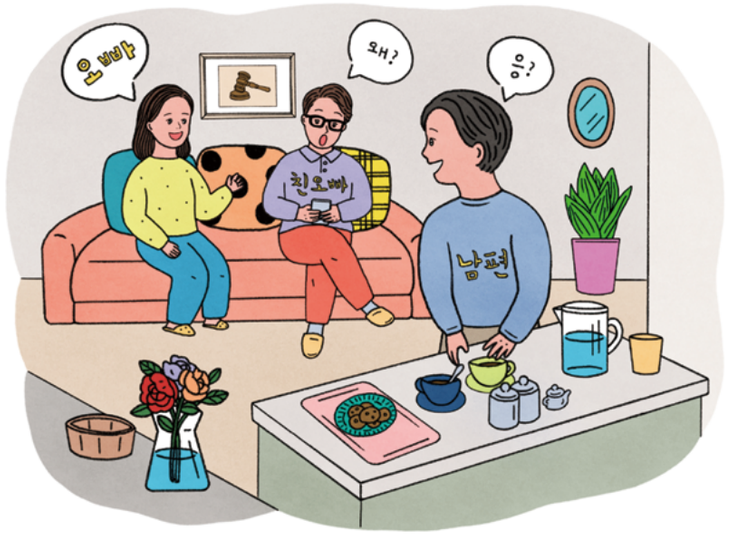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이를 때도 기본적으로 부르는 말과 같이 쓰면 됩니다. '(우리/저희) 아들', '(우리/저희) 딸'로 이르거나 '(우리/저희) 맏이'등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남이라고 해도 'ㅇㅇ[손주 이름] 아빠', 'ㅇㅇ[손주 이름] 엄마'와 같이 손주의 이름을 써서 자녀를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기대어 이르는 것도 방법인데, 예를 들어 막내아들에게 맏아들을 이를 때는 '큰형'으로, 손주에게 자녀를 이를 때는 자신의 손주와 자녀 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ㅇㅇ[손주 이름] 막냇삼촌'이나 'ㅇㅇ[손주 이름] 큰고모' 등을 쓰면 됩니다.

잠깐만요!

결혼한 여자들은 본인의 부모 집을 가리켜 '친정'이라고 하였던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한 남자들도 처가와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남자들에게도 결혼 전 부모의 집을 가리켜 부를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이 필요한데,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말인 '본가'를 활용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미혼의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도 부모님의 집을 가리켜 '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결혼했어요

남편과 아내



이런 일, 저런 일

-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나이는 동갑이지만 제가 선배이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저를 '선배'라고 불렀는데 결혼 후에 갑자기 '야'라고 부릅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도 '야'라고 부르는데 화도 못 내고 답답합니다.
- 아내는 저를 '오빠'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생겼는데도 계속 '오빠'라고 부르는데 아이들 앞에서라도 호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바꾸기 쉽지 않다면서 뭐 어떠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가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은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자녀나 손주가 생긴 후에는 자녀 또는 손주의 이름을 넣어 'ㅇㅇ[자녀 이름] 아버지/아빠'나 'ㅇㅇ[손주 이름] 할머니'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 전에 서로를 'ㅇㅇ야', 'ㅇㅇ 씨'와 같이 이름으로 부르거나 '자기', '선배', '오빠', '누나'와 같이 부르던 습관이 결혼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부르는 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부르는 말이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혹은 어색하게 하지 않는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만요!

부부간에 '자기'는 널리 쓰이는 호칭인데, '여보'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부간의 호칭으로 써도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기(自己)'는 원래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오늘날에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정답게 이르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를 이르는 말

남편과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이를 때는 '(우리/저희) 남편'이나 '(우리/저희) 아내'를 씁니다. 또 가족들에게 이를 때는 상대방과 남편, 상대방과 아내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을 이르는 말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남편을 이를 때는 사위를 부르는 말인 'ㅇ 서방', 'ㅇㅇ[자녀 이름] 아범/아빠'를 사용하고, 남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아내를 이를 때는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인 'ㅇㅇ[자녀 이름] 어멈/엄마'를 사용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직장과 같이 공적인 상황이나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에서는 'ㅇㅇㅇ 씨'나 'ㅇㅇㅇ 과장(님)'과 같이 배우자의 이름이나 직함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을 이르는 말 중에 '그이'가 있는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남편이 있다면 '이이'를 쓰고, 멀리 있다면 '저이'로 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친한 사이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우리 마누라'와 같이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누라'는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이므로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아내를 지칭하면서 '와이프'라는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어 표현인 '와이프'보다는 우리말 표현인 '아내'로 이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남편을 친구들에게 이를 때 '우리 신랑'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랑'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되도록이면 '우리 남편'이라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묻고 답하기

내 고민을 부탁해요!

질문

친구들 중에 자신의 남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와 같이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고위직에 있다면서 ‘그분’이라고 하거나 ‘우리 교수님’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듣기에 모두 불편한데요, 남편을 지칭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남편을 가족이 아닌 남에게 이를 때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는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남편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아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빠’로 쓸 경우 친아버지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이름] 아빠’와 같이 자녀의 이름을 넣어 부르거나 이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자신의 남편을 높여 이르는 것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이 자랑처럼 여겨져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우리/저희 남편’, ‘○○[자녀 이름] 아빠’처럼 두루 쓰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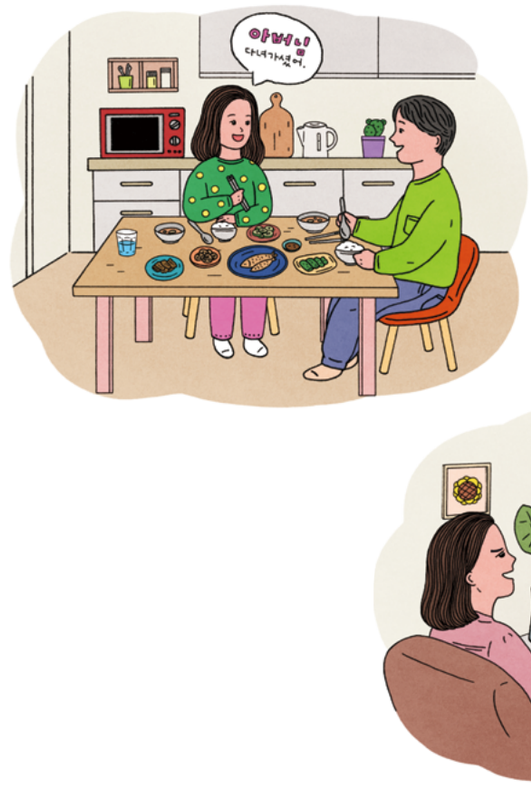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이르는 것은 틀린 것인지요?

답변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자신의 아내는 ‘아내’라고 지칭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3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라도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이런 일, 저런 일

- 시부모님께서 저를 예뻐하셔서 “아가야.” 하고 부르십니다. 결혼 초에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 좋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로 집안에 ‘아기’가 둘이 되었습니다.
- 아내는 제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릅니다. 저는 아내의 부모님을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부릅니다. 아내가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표현이 거리감이 느껴진다며 서운해하는데 저도 아내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야 할까요?

결혼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의 가족 역시 결혼 전 나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지내 온 시간이 다르고 또 가정마다의 분위기와 가풍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물없이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호칭과 지칭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부르고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배우자의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수 있습니다. 친부모와 구분할 필요가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를 높이는 마음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내의 부모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으로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나 특별히 구분할 상황이 아니라면 양가 부모 모두를 '아버지', '어머니'로 똑같이 부르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이르는 말도 부르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의 부모를 '장인/장인어른'이나 '장모/장모님'으로, 남편의 부모를 '시아버지/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시어머님'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자녀이거나 혹은 자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ㅇㅇ[자녀 이름] 할아버지', 'ㅇㅇ[자녀 이름] 할머니'로 이를 수 있습니다. 또는 '친-'이나 '외-'를 붙여 양가 부모를 구별해 이르거나 '부산 할아버지', '효자동 할머니'처럼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이름을 넣어 이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새)아가', 사위를 부르는 말은 'ㅇ 서방'을 기본으로 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ㅇㅇ[손주 이름] 아범/아빠', 'ㅇㅇ[손주 이름] 어멈/엄마'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신의 자녀를 부를 때처럼 며느리나 사위를 이름으로 직접 부르는 가정도 많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친자식과 같이 친근하게 생각하여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이 정답고 친근한 표현이 되어야지 며느리나 사위를 무시하는 느낌을 주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며느리나 사위가 편안하고 정답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의 자녀에게 "아들, 밥 먹었니?" 또는 "딸, 오늘 약속 있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며느리나 사위도 이르는 말인 '며느리'나 '사위'를 부르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며느리나 사위가 여럿일 때는 서열을 따져 '첫째야', '막내야'와 같이 다정하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이르는 말도 부르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새)아가'나 '(우리) 며느리', 사위는 'ㅇ 서방', '(우리) 사위'와 같이 가리킬 수도 있고 며느리와 사위의 이름으로 직접 이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 'ㅇㅇ[자녀 이름] 아내', 'ㅇㅇ[자녀 이름] 남편'으로 이르거나 손주의 이름을 넣어 'ㅇㅇ[손주 이름] 아범/아빠', 'ㅇㅇ[손주 이름] 어멈/엄마'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위를 부르고 이르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ㅇ 서방'인데, 다른 가족에게 가리켜야 할 경우에는 가족과 사위 간의 관계에 기대어 이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아빠는 뭐 하시니?", "아빠한테 전해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고민을 부탁해요!

질문

얼마 전 아내와 대화 중에 “저번에 장인, 장모 모시고 갔을 때”라고 말을 하니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더군요. 자기는 호칭이든 지칭이든 꼬박꼬박 ‘아버님’, ‘어머님’, ‘시부모님’과 같이 ‘-님’을 붙이는데,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니고 ‘장인’, ‘장모’가 뭐냐고 따집니다. 평소 저는 두 분을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무심코 ‘장인’, ‘장모’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인’, ‘장모’로 이르는 것이 크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부적절한 표현인가요?

답변

남편의 부모나 아내의 부모를 부르거나 이를 때는 기본적으로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의 부모보다 서열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이를테면 조부모 앞에서나, 배우자의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나의 부모 앞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인’, ‘장모’로 이르기보다는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아버님’, ‘어머님’ 등으로 높여 이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나이가 숫자에 불과해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이런 일, 저런 일

- 남편의 큰형은 거의 우리 아빠 나이와 비슷합니다. 남편은 형을 어려워하며 ‘형님’으로 부르고 존대를 합니다. 그런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도 ‘아주버니’로 부르기가 어려워 남편을 따라 시아주버니를 ‘형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우리 집은 자매가 많아 사위도 많은데, 사위들의 나이가 들쑥날쑥입니다. 최근 막내가 결혼했는데 하필 막냇사위의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막냇사위를 ‘○ 서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지 서로 호칭을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형제자매 간을 부르는 말도 남자와 여자, 형제자매의 서열에 따라 다르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위로는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쓰고 손아래로는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동생'과 같이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제들의 나이 차이가 크거나 형제들에게 손주가 생길 정도로 서로 나이가 들었을 경우 '형님', '누님' 등과 같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생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동생이 나이가 들어 이름으로 직접 부르기 어색하거나 동생에게 자녀가 생겨 동생을 대접할 필요가 있다면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간혹 '아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예스러운 표현으로 오늘날에는 널리 쓰이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형제자매 간에 나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서로 예의를 갖춰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를 부르는 말은 이르는 말로도 쓸 수 있는데, 서열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씁니다. 손위 형제자매를 이르는 말에는 '형/형님', '누나/누님', '언니', '오빠'가 있습니다. 손아래 형제자매를 이르는 말에는 '동생', '남동생', '여동생' 등이 있으며 이름으로 직접 일러도 됩니다. 예스러운 표현으로는 '아우'나 '누이', '누이동생' 등의 이르는 말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이를 때에는 나의 자녀와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 형을 내 자녀에게 이르는 경우라면 '큰아버지'나 '큰아빠'로 쓸 수 있습니다. 나의 형과 내 자녀를 모두 아는 상대방에게 나의 형을 가리킬 때는 자녀의 이름을 넣어 'ㅇㅇ[자녀 이름] 큰아버지/큰아빠'와 같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우리 가족을 잘 모르는 남이라면 '오빠', '동생' 등으로 두루 쓰고 친오빠나 친동생을 특별히 정해 가리켜야 한다면 '본가 오빠', '친정 동생' 등으로 이르면 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요즘은 과거와 달리 형제자매가 많지 않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긴 후에도 가깝게 지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형제자매가 결혼을 하면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불러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성별에 따라 서열에 따라 달리 불러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형의 아내를 '형수님'으로 부르는데 예전에는 '아주머니'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아주머니'가 성인 여성을 두루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쓰여 오히려 가족들 간에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아내는 '제수/제수씨'로 부르면 됩니다. 손위 누이나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는 '매부'로 두루 쓸 수 있으며, 누나의 남편은 '매형'이나 '자형'으로, 여동생의 남편은 'ㅇ 서방'이나 '매제'로 구분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상대방을 부르거나 이를 때

형의 아내	형수님, 아주머니
남동생의 아내	제수, 제수씨
누나의 남편	매형, 자형, 매부
여동생의 남편	○ 서방, 매제, 매부



여자가 상대방을 부르거나 이를 때

오빠의 아내	언니, 새언니, 올케언니
남동생의 아내	올케
언니의 남편	형부
여동생의 남편	○ 서방, 제부

여자의 경우 오빠의 아내는 '언니/새언니/올케언니'로,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로 부릅니다. 언니의 남편은 '형부', 여동생의 남편은 'ㅇ 서방'이나 '제부'로 부릅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손아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는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ㅇㅇ 씨'와 같이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부부들 간 서열과 나이가 서로 뒤바뀐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서열에 따르면 윗사람이지만 나이가 나보다 어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호칭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존중하여 부르려면 서열이나 나이, 집안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 호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의 아내는 기본적으로 '형수님'으로 불러야 하지만 형의 아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형이나 형의 아내에게 양해가 되었다면 '형수'로 부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빠의 아내 역시 '언니/새언니/올케언니'로 불러야 하지만 오빠의 아내가 나보다 어리다면 '올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동생의 배우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원래 부르는 말인 '제수', '매부', '올케', '제부'에 '-님'을 붙여 전통적인 호칭을 지키면서도 나이가 많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갈등 없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이를 때는 대체로 부르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형의 아내를 이르는 경우에는 '형수/형수님'이나 나의 자녀 이름을 넣은 'ㅇㅇ[자녀 이름] 큰어머니/큰엄마'로 쓰면 됩니다. 또 언니의 남편을 이르는 경우에는 '형부/형부님'이나 자녀의 이름을 넣은 'ㅇㅇ[자녀 이름] 이모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오빠의 아내를 이르는 경우라면 '언니/새언니/올케언니' 등을 씁니다. 또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는 경우라면 'ㅇ 서방'이나 '매제', '매부' 등을 쓰면 됩니다. 물론 자녀의 이름을 넣은 'ㅇㅇ[자녀] 아범/아빠'도 이르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내 고민을 부탁해요!

질문

최근 출산 후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 시댁 식구들의 호칭을 다르게 불러도 된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님'을 '고모'로, '아주버님'을 '고모부'로 말이죠. 그동안 시댁 식구들을 불러 오던 말이 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굳이 다르게 불러야 할까요?

답변

부르는 말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따져 쓰면 됩니다. 자녀가 생겼으니 'ㅇㅇ[자녀 이름] 고모', 'ㅇㅇ[자녀 이름] 고모부'와 같이 부를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형님', '아주버님'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님’과 함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런 일, 저런 일

- 막내 처제가 결혼을 했는데 처제 남편이 제 고등학교 선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나 ‘○ 서방’으로 부르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 큰아주버님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무려 저보다 열 살이 어립니다. 열 살이나 어린 형님이 저를 ‘동서’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는데 시부모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좀 서운합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형제자매 간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부부간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 연하 부부가 흔해졌습니다. 손아래 형제자매가 먼저 결혼을 하는 일도 자주 있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호칭이나 지칭이 가족들 간의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편의 누나는 ‘형님’, 남편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로 부르고 이릅니다. 아내의 오빠는 ‘형님’, 아내의 언니는 ‘처형’,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로 부르고 이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자가 남편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를 때

남편의 형	아주버님
남편의 누나	형님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남자가 아내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를 때

아내의 오빠	형님
아내의 언니	처형
아내의 남동생	처남
아내의 여동생	처제



잠깐만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친하게 지내는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나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남편의 누나를 '형님' 대신 '언니'로 부르거나, 남자가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 대신 이름으로 직접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집안의 분위기에 따를 일입니다.

배우자의 동생이 나보다 어린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를 때 특히 갈등이 되는 경우가 배우자의 동생을 높여 불러야 할 때입니다. 남편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나에게도 동생인 셈인데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로 높여 부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녀와의 관계에 기대어 'ㅇㅇ[자녀 이름] 삼촌', 'ㅇㅇ[자녀 이름] 고모'로 부르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동생들이라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밀한 사이이거나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름을 직접 부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배우자의 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생을 존중해 불러야 하는데 남동생과 여동생을 모두 '동생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라면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님',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님'과 같이 '-님'을 붙여 부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손위 형제자매가 나보다 어린 경우

반대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서열로는 위이지만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데 나보다 어린 경우, '형님'으로 부르는 것이 서로 어색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녀의 이름을 넣어 'ㅇㅇ[자녀 이름] 고모'라고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누나를 부르는 호칭인 '누님'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형이 나보다 어리다면 결혼 전에는 'ㅇㅇ[자녀 이름] 큰삼촌', 결혼 후에는 'ㅇㅇ[자녀 이름] 큰아버지'와 같이 자녀와의 관계에 기대어 부릅니다. 남편이 부르는 호칭인 '형님'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내의 오빠인데 나보다 어리다면 'ㅇㅇ[자녀 이름] (외)삼촌'으로 부르거나 손윗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처남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언니는 '처형', 'ㅇㅇ[자녀 이름] 이모'로 부릅니다.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여자는 남편의 형수를 '형님', 남편의 매형을 '아주버니/아주버님', 남편의 제수를 '동서', 남편의 매제를 '서방님'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자는 아내 오빠의 아내를 '아주머니/아주머님', 아내의 형부를 '형님',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처남댁', 아내의 제부를 '동서' 또는 'ㅇ 서방'으로 부릅니다.



여자가 남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를 때

남편의 형수	형님
남편의 매형	아주버니, 아주버님
남편의 제수	동서
남편의 매제	서방님



남자가 아내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를 때

아내 오빠의 아내	아주머니, 아주머님
아내의 형부	형님
아내 남동생의 아내	처남댁
아내의 제부	동서, ○ 서방



잠깐만요!

요즘은 며느리들 간, 사위들 간 서열과 나이가 뒤바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동서님'이라는 말을 두루 쓰면 어떨까요? 서열 관계를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호칭보다 '-님'을 붙여 상대를 존중하는 뜻을 드러낸다면 호칭으로 생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전통적으로 정해 부르는 말이 불편하다면 배우자가 부르는 호칭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면 남편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매부' 또는 '매제'라는 호칭을 빌려 '매부님', '매제님'과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 누나의 남편도 남편이 매형을 부르는 호칭에 '-님'을 붙여 '매형님'으로 부르면 됩니다.

한편 배우자의 동생을 '○○ 씨'와 같이 이름을 넣어 불러 친근함을 드러낸 것처럼 배우자 동생의 배우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 씨'로 이름을 부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에게 이르는 경우에도 부르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부르는 말과 마찬가지로 서열과 나이가 뒤바뀐 경우에는 '동서님'이나 '○ 서방님', '동생님' 등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이름] 아버지/아빠', '○○[자녀 이름] 어머니/엄마'로 이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따져 '○○[자녀 이름] 고모', '○○[자녀 이름] 고모부'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내 고민을 부탁해요!

질문

저에게는 두 살 위인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가 두 살 연하와 결혼을 해서 형부랑 저랑 나이가 같고, 남편은 저와 형부보다 한 살 위입니다. 남편은 한 살 어린 형부에게 동서라고 부르는데, 형부는 남편에게 동서라는 호칭 대신 '○○ 씨'라고 부릅니다. 제 남편은 한 살 어린 형부가 '○○ 씨'라고 호칭하는 것이 본인을 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부가 제 남편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답변

나이 어린 손위 동서가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를 '○○ 씨'로 호칭하면 상대가 본인을 하대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열과 나이가 역전된 경우에는 서로를 더 존중하는 '동서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언어 예절은 지역, 가정 풍습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예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서로 존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조카님, 아이스크림 사 주세요

삼촌과 조카



이런 일, 저런 일

- 저희 집은 종갓집입니다. 명절마다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데 호칭을 뭐라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매번 당황합니다. 어려서는 호칭을 잘 몰라서 어른들에게 꾸지람도 들었지만 이제 저도 아이가 생기고 나니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정확한 호칭과 촌수를 알아야겠습니다.
- 결혼을 한 후에 아내 집안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저씨뻘이라며 저에게 꼬박꼬박 존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족히 스무 살은 많은 분입니다. 본가와 처가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일가가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삶의 흔한 모습이었던 예전에는 3촌 이상의 친척과도 자주 만났지만 요즘은 가정에 따라 명절에만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5촌 이상의 친척과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나 겨우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뵙는 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잘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작은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의 누나는 '큰고모', 아버지의 여동생은 '작은고모'라 부릅니다. 만약 아버지의 형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이 여러 명일 때는 '첫째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 등으로 부릅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삼촌'이라 부릅니다. 아버지의 여자 형제가 여러 명일 때 부르는 방법도 이와 같은데, 가정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여자 형제들의 경우 아버지와의 손위, 손아래 관계를 자세히 따지지 않고 '고모'라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예전에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겼을 때 형도 역시 자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형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여 자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에게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호칭이지만, 아버지의 형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큰)삼촌'으로 부르고 이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아버지 형의 배우자는 '큰어머니', 아버지 남동생의 배우자는 '작은어머니'라 부릅니다. 아버지 여자 형제의 배우자는 '고모부'라 부릅니다.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가정에서는 고모부를 '아저씨'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저씨'는 부모와 같은 항렬이되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 이를테면 고모부, 이모부, 당숙 등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외삼촌',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모'라 부르거나 이릅니다. 어머니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방법도 아버지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방법과 대체로 같아서 어머니와의 서열 관계에 따라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큰이모', '작은이모'와 같이 부르거나 이릅니다. 다만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서는 서열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외삼촌', '이모'라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어머니의 남자 형제의 배우자는 '외숙모', 여자 형제의 배우자는 '이모부'라 합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외-'를 붙이지 않고 '삼촌', '숙모'로 부르거나 이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친가나 외가와 모두 가깝게 지내다보니 '친-'과 '외-'로 구분하기보다는 지역이나 다른 특징으로 구분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촌과 그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아버지의 사촌 형제, 즉 큰할아버지나 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은 '당숙/당숙 아저씨/아저씨'라 부르거나 이르고, 그 배우자는 '당숙모/아주머니'라 부르거나 이릅니다. '당숙'의 높임 표현인 '당숙 어른/당숙 어르신'으로 부르고 이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여자 사촌 형제는 '당고모'이며, 그 배우자는 '당고모부'입니다.

조카와 조카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조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조카를 이를 때는 불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친조카, 조카딸, 처조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관계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조카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이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조카가 결혼을 하였거나 특별하

게 대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카', '조카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조카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를 때는 '질부', '조카며느리', '○ 서방', '조카사위'를 쓰고, 특별히 대우할 때는 '조카며느님', '조카사위님'이라 부르거나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조카 배우자를 이름이나 '○○ 씨'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조카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 아빠/아범', '○○[자녀 이름] 엄마/어멈'과 같이 자녀 이름을 넣어 부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특히 집안 어른들이 조카의 아내를 '아가', '새아가', '아기', '새아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지만 간혹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느끼는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 씨' 또는 '질부'로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고민을 부탁해요!

질문

아버지의 형님이 두 분인 경우, 첫째 형님을 '큰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버지의 둘째 형님은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형님이시니 '큰아버지'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집에서는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아버지의 형님은 '큰아버지', 동생은 '작은아버지'라 부릅니다. 만일 형제가 여럿이어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버지의 첫째 형님은 '첫째 큰아버지', 둘째 형님은 '둘째 큰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반대로 작은아버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아버지 바로 아래 동생은 '첫째 작은아버지', 그 아래는 '둘째 작은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7 효자동 할머니 댁에 놀러 가요

조부모와 손주



이런 일, 저런 일

- 딸아이를 장모님이 키워 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딸아이에게 천안 할머니 집에 가자고 했더니 "친할머니 집?" 하고 말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도 제 어머니께 '친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모님께는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 남편의 할머니가 구순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정정하십니다. 증손주를 아주 예뻐해 주셔서 그런지 주말만 되면 아들 녀석이 증조할머니인 '파주 할머니' 보러 가자고 조릅니다. 아이가 어색해하더라도 격식을 따져 '증조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버지 집안 쪽을 '친가', 어머니 집안 쪽을 '외가'라 일러 온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로, 어머니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붙는 '친(親)-', '외(外)-'라는 표현은 과거의 사회 문화에서 비롯된 언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바뀌어 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왕래하는 빈도에 따라 조부모와 손주 사이의 관계가 달리 형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친가보다 외가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정들이 많아 외할머니를 '외할머니'라고 하지 않고 '할머니'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부모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어려서 조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는 것에는 과거와 차이가 없지만 결혼한 성인이 시조부모, 처조부모를 부르는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조부모와 처조부모를 '할아버님', '할머님'으로 불렀고, 시조모나 처조모에 한해서만 '할머니'라 부르는 것이 예의에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조부모나 처조부모를 부르는 말에서도 일부러 구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조부모나 처조부모를 '할아버님', '할머님'이라 부르되, '할아버지', '할머니'라 불러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방법도 아버지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방법과 비슷

하여, '큰할아버지', '큰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작은할머니'로 부르거나 이릅니다. 또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 이름] 할아버지', '○○[지역 이름] 할머니'로도 부르거나 이릅니다. 지역에 서열 관계까지 고려한 '○○[지역 이름] 큰할아버지', '○○[지역 이름] 큰할머니'와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부르는 방법은 더 다양합니다. 할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고모할머니/대고모/왕고모'로 부르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고모할아버지/대고모부/왕고모부'로 부릅니다. 또한 지역에 기댄 표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모할머니와 고모할아버지를 '춘천 할머니', '효자동 할머니', '춘천 할아버지', '효자동 할아버지'처럼 부르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여자 형제와 그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를 때는 '이모할머니', '이모할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손주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손주는 손주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이릅니다. 문제는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손주를 이르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친손주와 외손주를 구별하여 친손주는 '손자'와 '손녀'로, 외손주는 '외손자'와 '외손녀'로 특정해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부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외손주의 경우에도 '손자'와 '손녀'라고 합니다.

8 가깝고도 먼 우리 사이

사돈



이런 일, 저런 일

-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보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를 부르실 때 제 이름을 넣어 '선주 엄마'라고 부르십니다.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사돈'이나 '선주 어머니'로 불러 주시면 좋을 텐데, 매번 '선주 엄마'라고 하시니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좀 쓰입니다.
- 얼마 전 장인어른 칠순 잔치에서 저희 집안 어른들이 처형을 자꾸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라 부르며 결혼을 빨리해야 한다고 성화를 하셨습니다. 처형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적지 않은 나이이고 보니 '아가씨'나 '처녀'로 불리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돈 간에 만나는 일이 드물었지만 요즘은 사돈 간에도 격의 없이 가깝게 지내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결혼으로 인해 사돈이 생기면 가족 간의 행사나 모임 등에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어린 자녀의 육아를 사돈끼리 함께 나누어 맡으면서 더욱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호칭이나 지칭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동안 부를 일이 없었던 호칭이나 지칭이 필요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결혼은 나의 가족과 같은 범위의 가족이 더 생기는 것이어서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 간에도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불러야 합니다. 우선 사위나 며느리의 부모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은 내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 전통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관계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말로 '사돈', '사돈어른'이 있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빌려서 'ㅇㅇ[손주 이름] 할아버지', 'ㅇㅇ[손주 이름] 할머니', 'ㅇㅇ[손주 이름] 외할아버지', 'ㅇㅇ[손주 이름] 외할머니'로 부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나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돈 집안의 형제자매도 기본적으로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두루 '사돈'을 써서 부를 수 있습니다. 가령 형수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나 여동생, 또는 올케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사돈도령/사돈총각', '사돈아가씨/사돈처녀' 등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모두 '사돈'으로 불러도 됩니다. 자녀 배우자의 가족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에게도 전통적으로 '사돈'이라는 말을 아울러 썼으므로, '사돈총각'이나 '사돈처녀' 등은 모두 '사돈'으로 대체해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돈 사이에는 같은 항렬이더라도 상대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 하여 '사돈어른'이라고 높여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형수의 오빠나 올케의 언니를 부르거나 이를 때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사돈어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돈어른'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를 높여 부르는 말이므로 같은 항렬은 그냥 '사돈'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의 자녀를 알고 있다면 'ㅇㅇ[자녀 이름] 아버지', 'ㅇㅇ[자녀 이름] 어머니'와 같이 상대방의 자녀 이름을 넣어 친밀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며느리나 사위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말인 '사돈도령/사돈총각'이나 '사돈아가씨/사돈처녀' 등은 그 쓰임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도령'이나 '아가씨'는 그 쓰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총각', '처녀'도 상대의 결혼 여부나 나이 정도를 직접 드러내는 말이어서, 거부감이 든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를 모두 '사돈'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고 며느리나 사위의 형제 관계에 기대어 부르거나 가리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자녀 이름을 넣어 'ㅇㅇ[자녀 이름] 삼촌/외삼촌', 'ㅇㅇ[자녀 이름] 고모/이모' 등으로 부르고 이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를 높이고자 할 때는 '(사돈) 동생분/형님분/누님분/언니분'처럼 말끝에 '-분'을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돈과 가까이 지내는 가족 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본인보다 아래 항렬의 사람에게는 'ㅇㅇ 씨'처럼 이름을 불러 친근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고민을 부탁해요!

질문

며느리의 남동생이 미혼인 경우는 '사돈총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돈총각이 결혼을 한 후에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 배우자의 가족에게는 모두 '사돈'이라는 말을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의 남동생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돈'이라 부릅니다. 관계성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면 '사돈 동생분'이나 'ㅇㅇ[며느리 이름] 동생분'으로 표현하거나, 손주의 이름을 빌려서 'ㅇㅇ[손주 이름] 외삼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9 일로 만난 사이

직장 내 관계





이런 일, 저런 일

- 저희 회사에는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마치 서로가 특별히 친밀한 관계임을 주변에 과시하는 것처럼 '형', '언니'로 부르는 것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 남들보다 취직이 늦어져서 올해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 대리님이 같은 대학의 학과 후배입니다. 저는 '대리님'이라고 부르는데 후배 녀석은 '○○○ 씨'라고 합니다.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이나 나이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언어 예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직장 내의 서열 관계가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서열 중심의 경직된 호칭이나 지칭이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를 해친다는 판단에서 직장 내의 호칭이나 지칭을 바꾸려는 노력이 그간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가족 간의 호칭과 지칭도 가정마다 분위기나 관습에 따라 다르듯이, 직장 내의 호칭과 지칭도 직장 문화나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직장에서 정해 쓰는 말이 언어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전통적으로 직장 상사를 부르거나 이를 때는 '○○[직함 이름]님'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앞에 이름이나 성, 부서 등을 붙여 해당 상사를 구별해 불러 왔습니다. 직함이 없는 상사는 '선배님'과 '선생님'으로 부르거나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친밀함의 정도가 높은 사이에는 '-님'을 붙여 높여 부르는 것이 서로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 선배', '○ 선배' 등과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호칭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직장 동료는 '○○[직함 이름]님' 또는 '○○[직함 이름]'과 같이 직함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성이나 이름을 넣어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함이 없을 때는 이름이나 성에 '씨'를 붙여 쓰거나 동료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다면 '선배(님)'과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간혹 동성의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해 '형',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친밀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적인 직장에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서열을 강조하는 직함 대신 'ㅇㅇㅇ님', 'ㅇㅇ님'과 같이 정겹게 이름을 서로 부르는 직장도 있습니다. 직장마다 고유한 특징을 살려 바람직한 호칭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를 이르는 경우에도 호칭을 활용하면 됩니다. 성이나 이름에 직함을 붙여 지칭하는 것이 기본인데 직함이 없을 때는 '선생'이나 나이에 따라 '선배', '후배' 등을 직함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직장 부하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예전에는 직장에서 아래 직원을 'ㅇ 군', 'ㅇ 양', '미스터 ㅇ', '미스 ㅇ' 등으로 부르거나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상호 존중이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분위기에 맞지 않고, 성별이나 결혼 여부 등의 개인적인 정보가 호칭에 담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공적 영역인 직장에서는 'ㅇㅇㅇ 씨', 'ㅇㅇ 씨' 또는 'ㅇ 대리[직함 이름]'로 부르는 것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씨' 대신 '-님'을 붙여 'ㅇㅇㅇ님', 'ㅇㅇ님'과 같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한편 직장 상사의 아내나 남편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사의 아내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에는 '아내분', '사모님', '여사님' 등이 있고, 상사의 남편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에는 '남편분',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의 직함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함으로 불러도 되고, 상사의 아내를 '사모님'으로 부를 수 있듯이 상사의 남편은 '사부님'으로 부르거나 일러도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직장 동료, 부하 직원 등 직장 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최근 나이 많은 후배나 동료를 두게 된 직장인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승진 제도가 유연해지면서 입사 선후배의 직위가 역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직장 내 호칭 방법인 직함 중심의 호칭을 그대로 쓰자니 서로가 어색하고, 쓰지 않으려니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호칭이 동료들 사이에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직급이 같은 나이 많은 동료나 후배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많은 직장에서 나이 많은 후배를 '후배(님)'으로 부르거나 직함에 '-님'을 붙여 '대리님', '과장님'이라 부릅니다.

묻고 답하기

내 고민을 부탁해요!

질문 사회 초년생인 신입 사원입니다. 직장 동료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이 궁금합니다. 부하 직원이나 나이가 어린 동료의 남편에 대해서도 '부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부군'은 남의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손윗사람의 남편이나 손아랫사람의 남편 모두에게 '부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 교사가 학부모와 전화나 대면 상담을 할 때, 본인을 "저는 ○○○의 담임 선생님입니다."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답변 '선생님'은 직업이나 직책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므로 자신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선생님'은 '선생'을 높여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으므로, 자신을 높여 이르는 것을 자연스러운 쓰임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보다는 "저는 ○○○의 담임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담임 선생', '담임 교사'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0 또 다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족, 직장을 제외한 관계



이런 일, 저런 일

-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점원이 저에게 대뜸 '어머님'이라고 불러 놀랐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따져 보면 저보다 그리 어리지 않을 것 같은 점원이 '어머님'이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 저는 다섯 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저보다 다섯 살 이상 어린데, 저에게 꼬박꼬박 "제수씨."라고 합니다. 남편 친구들이니 참기는 하는데 가끔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사이에서는 나이나 사회적 힘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칭 표현에는 언어적 의미 외에도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이 차이나 사회적 우월감을 직접 드러내는 말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과 손님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

예전에는 손님이 직원을 '젊은이', '총각', '아가씨' 등으로 불렀는데,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나이 차이나 손님으로서 갖게 되는 사회적 힘의 차이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직원을 '아줌마'로 부르는 경우도 상대방을 낮추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의 문화 의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식당이나 상점 직원을 '아줌마', '아저씨', '젊은이', '총각', '아가씨' 등으로 부르는 관습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식당, 미용실, 상점과 같은 서비스 기관의 직원을 부르는 말로 '여기요', '저기요' 등이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직원과 손님 사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님과 직원 모두에게 편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는 '○○○ 씨', '○○ 씨'라 부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한편 은행,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을 부를 때는 직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과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손님을 부르는 말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 기관에서 손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 님', '○○○ 선생님'이라 부르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환자를 '○○○ 님'으로 부르고 이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상점이나 학원과 같은 곳에서는 손님을 부르거나 이를 때 '손님', '고객님', '회원님' 등 여러 가지 말이 쓰입니다. 이름을 붙여 구분해야 할 때도 '○○○ 손님', '○○○ 고객님', '○○○ 회원님' 등으로 부르거나 이릅니다.

친구의 가족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

친구 사이의 호칭은 문제가 거의 없는데 친구의 가족 또는 배우자 친구의 가족과 어울리는 경우에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어울리고 이름을 불러도 되는 가까운 사이라면 배우자의 친구나 친구의 배우자를 '○○ 씨'로 부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친구 자녀의 이름이나 직함을 활용해 '○○[자녀 이름] 어머니/엄마', '○○[자녀 이름] 아버지/아빠' 또는 '○ 과장님'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너희 집사람'이나 '너희 안사람'을 쓰기보다는 '너희 아내'나 '부인'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사람'이나 '안사람'이 요즘 우리 현실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그 친구 와이프는 말이야." 하는 식으로 '부인'이라는 말 대신에 '와이프(wife)'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맞은 우리말 표현이 있으므로 외국어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깐만요!

친구의 아내를 '제수' 또는 '제수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르거나 이르는 말의 쓰임이 사회적인 관계로 확장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수'는 '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남남의 남자끼리 동생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는 말로 한정되어 있어, 친구의 아내를 부르거나 이를 때 '제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가 형제처럼 친밀하고 친구의 아내가 이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면 '제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친구의 자녀는 이름으로 부르면 되고, 친구의 형제자매라면 나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것처럼 '형/형님', '오빠', '언니', '누나/누님' 등으로 부르면 됩니다. 동생의 경우는 그냥 이름으로 부르거나 이르는 것이 보통인데, 서로 나이가 들거나, 공적인 자리이거나,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서 이름만 부르기 곤란하면 '○○ 씨'처럼 '씨'를 붙이거나 '동생(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려서는 친구의 부모님을 '아저씨', '아주머니'로 부르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어르신' 또는 '○○[친구 이름] 아버님/어머님' 등으로 부릅니다. 특별히 친밀함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부를 때와 혼동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친밀한 정도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부르면 됩니다.

요즘에는 가족 간에 부르는 말이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에까지 확장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가령 내 친구를 나의 자녀에게 '아줌마'나 '아저씨'라 이르는 것이 예전의 방식이자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지만,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모'나 '삼촌' 등과 같이 가족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도 부모의

지인을 '이모', '삼촌' 등으로 부르거나 이릅니다. 이처럼 가족 호칭의 쓰임이 확대되는 것은 서로 간의 친밀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호칭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고민을 부탁해요!

질문 아이 친구의 엄마들끼리 적당한 호칭이 없어 '○○[자녀 이름] 엄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자녀 이름] 엄마'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답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쓰임을 보면 '○○[자녀 이름] 엄마'라는 말은 같은 연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면 '○○[자녀 이름] 어머니/어머님'을 써서 상대를 높여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구 책임자** 박철우 _ 안양대학교 교수

■ **공동 연구원** 안병섭 _ 고려대학교 교수

이현희 _ 안양대학교 교수

■ **담당 연구원** 김미현 _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박미영 _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삽　　화** 정두나 작가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 언어 예절을 중심으로」(2018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발행일 2019년 11월 30일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　화 02-2669-9775

인　쇄 크리홍보 주식회사

■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